

도내 제조업 생산 급감... 수출 · 고용도 둔화

10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 지역 경기 하방 압력 키위

10월 전북 경제가 제조업 부진과 고용 감소, 수출 둔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와 설비투자 지표가 반등하며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주력 산업의 생산 감소가 지역 경기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11.8% 감소하면서 9월의 증가세(11.7%)와는 대조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동차(-33.7%), 화학제품(-13.3%), 식료품(-6.3%) 등 주요 업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출하도 6.0% 감소한 반면 재고는 15.0% 늘어나 재고율이 156.6%에

이르는 등 수요와 생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소비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대형 소매점 판매가 5.6%, 대형마트 판매가 10.2% 증가하며 전월의 급락(-16.6%)에서 반등했다. 그러나 승용차 신규등록은 15.0% 감소해 내구재 소비는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경기는 혼조양상을 보였다.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42.1% 감소했고 특히 주거용 착공은 87.2% 급감했다.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42.5% 증가했으며, 미분양 주택은 2,369호로 다소 줄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1,521호로 늘어나 주택시장 부담은 여전했다. 설비투자 지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기계류 수입액이 18.9% 증가한 57.4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제조업 설비투자 BSD도 93에서 95로 상승해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의 수출은 4.9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0.3% 감소했다. 동제품(+55.5%)과 자동차(+25.7%)는 증가했지만 건설광산기계(-70.6%), 합성수지(-7.2%) 등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수입은 10.6% 줄었으며 무역수지는 0.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시장도 둔화했다. 10월 취업자는 10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천 명 감소했다. 농업·농림업(-1.7만 명), 도소매·음식숙박업(-0.9만 명), 제조업(-0.6만 명)은 감소한 반면 전기·운수·통

신·금융(+1.5만 명), 사업·공공서비스(+1.0만 명) 등은 증가했다. 고용률은 64.7%로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1.4%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도 확대됐다. 11월 전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으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각각 6.3%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생활물가는 3.3% 상승해 체감물가 부담 역시 커졌다.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수출 부진이 지역 경기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자동차·화학 등 주력 산업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설비투자 개선과 소비 회복이 이어질지가 향후 경기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창립 제56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반세기를 넘어선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역사를 다시금 새겼다.

AI 혁신 미래 금융 도약 선언

전북은행, 제56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전북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천명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창립 제56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반세기를 넘어선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역사를 다시금 새겼다. 백종일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올해 해 불확실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전북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백 은행장은 급변하는 금융 지형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로 ‘AI 혁신’을 꼽으며, “새로운 금융 생

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행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AI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해, 혁신을 선도하는 강소은행으로 도약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은행은 1969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가계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또한 금융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이라는 가치 실현에도 힘써왔다. 창립 56주년을 맞은 전북은행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금융 미래를 열어갈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산 딸기 맛 · 품질 전국에 알린다

전북농협, 제철 딸기 특별판매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겨울철 대표 농특산물인 전북산 딸기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12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수도권 · 호남권 농협하나로마트 및 전주유통센터에서 전북 제철 딸기를 선보이는 ‘예담채 딸기 통합관측행사’를 진행한다. 전북산 딸기는 비타민 A와 C, 식이섬유,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감기 예방과 항산화 효과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 호남권 농협하나로마트 및 전주유통센터에서 전북 제철 딸기를 선보이는 ‘예담채 딸기 통합관측행사’를 진행한다.

에 탁월하며,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어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경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 딸기는 지난해에만 약 6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 효과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농협은 이번 관측행사를 통해 전북산 딸기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산지 농가의 판로 확대와 겨울철 과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 AI 기술세미나 개최

전북테크노파크가 11일 오후 3시 전북스마트농생명오픈랩에서 ‘바이오 AI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역 바이오 연구환경의 혁신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분야에서 자동화 · AI 기반 실험 플랫폼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 구축 전략과 기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첫 발표는 신상(쥬에이블랩스 대표)가 맡았다. 그는 자율실험실의 기술 원리와 로봇 자동화 실험 환경을 소개하고, 파이썬팅 등 반복적인 실험 공정을 로봇이 수행하는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 자율실험실 구축을 위한 장비 인프라와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 여건 등이 논의됐으며, 마지막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산업 혁신의 핵심 기술인 자율실험실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전북의 바이오 연구 인프라 고도화와 미래 실험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족친화기업’ 12년 연속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12년 연속 선정되며 가족친화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 양육 지원, 일 · 가정 양립 제도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과 기업에 부여되는 제도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가족친화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가족여가활동 지원과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중심의 직장문화를 확산해 왔다. 가족

과 함께하는 문화 · 체력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을 정례화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를 넓혔으며, 직장 문화 교육을 통해 조직 전반에 가족친화경영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도 힘썼다. 또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및 근무제도를 마련해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동참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오상근 기자

신성건설, 협력업체와 ‘상생 · 안전 · 소통’ 대전환 선언

(주)신성건설이 2025년 협력업체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며 안전과 소통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10일, 주요 공종별 협력사 관계자와 신성건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및 안전 체계 강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건설 안전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품질 확보 전략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

가 오갔다. 특히 사전에 접수된 협력업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해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신성건설은 협력사와의 관계를 단순 계약에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확대, 공정한 협력업체 평가 제도 운영,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등 구체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